

NEWS & NEWS

정기이사회

치협은 지난 9월 14일 제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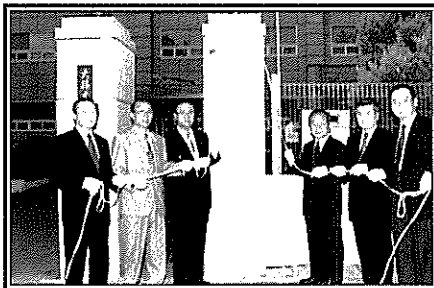
치협은 치과분야의 전문의에 대한 공식명칭을 그동안 '치과전문'로 잘못 사용하던 것을 '전문치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공문서상에 이 명칭을 쓰도록 했다.

또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에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을 당초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전국치과대학 학생 학술경연대회 규정 제정의 건, 협회창립 78주년 기념 제43회 종합학술대회 예산(안) 결정의 건, 회비면제 승인의 건,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 규정(안) 제정 검토의 건, 경상북도치과의사회 회칙 개정(안) 인준의 건, 회관 구조안전진단 실시의 건, 현대해상화재보험 '치과의사 Specialist 상해보험' 단체계약 체결의 건 등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개원

지난 9월 15일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현)이 개원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지난 6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연구원 설립은 발빠른 준비작업을 거쳐 연구원 조직운영규정과 사업계획, 임원을 확정하고 첫 번째 연구과제로 200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수가계약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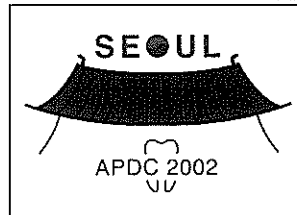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구성

'전문치과의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임형순)(이하 시행위)가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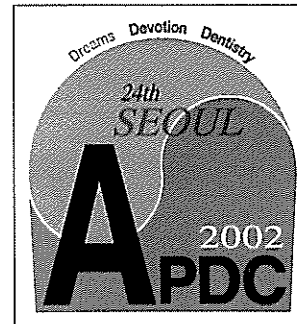
시행위 위원은 임형순 위원장을 비롯 조영수 치무이사, 장계봉 법제이사, 홍삼표·박영국 학술이사, 김지학 기획이사, 김세영 섭외이사 등 치협 집행부 임원 7명, 학계에서 장영일 서울치대 교정과 교수, 김명진 서울치대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조인호 단국치대 보철과 교수 3명, 개원기에서 김우중 서울지부 부회장, 권오양 서울지부 학술이사, 서울 강남구 김광호씨 등 3명으로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완료했다.

APDC서울총회 엠블럼공모전 시상식

2002년 아태회의의 서울총회 엠블럼 공모전에 입상한 수상



▲ 학생부문 수상작



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9월 16일 치협회관 회장실에서 열렸다.

일반인 부문의 수상자는 크리에드(대표 최성환)가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학생부문에서는 계명대 김수진씨로 지난 8월 31일 결정 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홍순용 조직위원장과 손창인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 일반인 부문 수상작

KBS 사랑의리퀘스트 '사랑의 틀니' 전달사업

치협은 지난 10월 2일 세계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KBS와 공동으로 사랑의 틀니 전달사업을 펼쳤다.

사랑의 틀니 전달사업은 KBS 1TV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방송됐으며 KBS 및 한국복지재단에서 선정한 무의탁, 독거, 생활보호대상자 등 201명의 불우 노인에게 무료틀니를 시술했다.